

01.
연구 개요

02.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03.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관계

04.
코로나19 시대
필요한 가족정책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¹⁾

-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바이러스로 인해 개인의 일상부터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까지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행태로 변화되었음
- 코로나19 이후 가족은 온라인 학습, 재택근무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도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본고에서는 2021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경남가족실태조사> 내용 중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되었으며, 변화된 가족관계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원하는 정책 욕구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01. 연구개요

-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방안 : 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일환으로 실시한 경남가족실태조사 결과 중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
- 경남가족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1년 05월 20일 ~ 06월 11일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면접조사
 - 조사대상 : 경상남도 거주 20~79세 도민 1500명(여성 751명, 남성 749명)
 - *성별/연령별/가족유형별/거주지역 통계에 따라 층화표집 실시
- 경남가족실태조사 코로나19 가족 변화 관련 조사항목
 - ①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
 - ②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관계에서 힘들었던 점
 - ③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변화
 - ④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제도 이용 여부
 - 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대응 위해 필요한 가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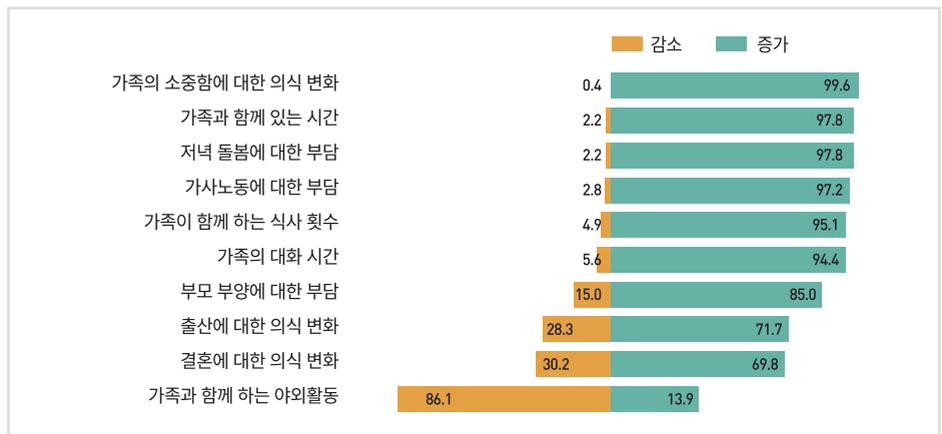


1) 본 내용은 2021년 12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간 예정인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방안 : 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요약함

02.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99.6%)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97.8%)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반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97.8%)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97.2%)이 증가했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는 캠핑, 여행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86.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결혼에 대한 인식(30.2%)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28.3%)이 감소했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남

그림1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에 대한 견해는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유의도 검증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었음.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사노동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부담감이 평소에도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던 여성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1 코로나19 가족의 변화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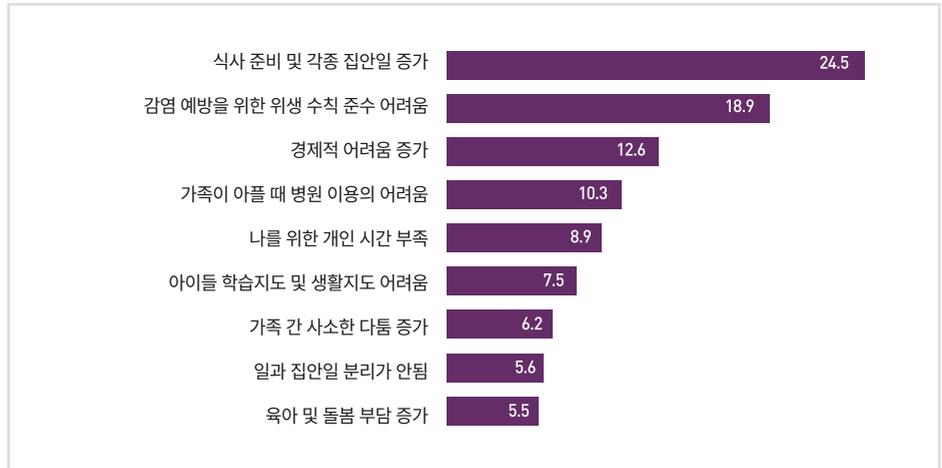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변화	0.4	99.6	0.4	99.6	0.4	99.6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1.5	98.5	2.8	97.2	2.2	97.8
저녁 돌봄에 대한 부담	1.7	98.3	2.8	97.2	2.2	97.8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2.1	97.9	3.8	96.2	2.8	97.2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횟수	4.2	95.8	5.7	94.3	4.9	95.1
가족의 대화 시간	6.3	93.7	4.8	95.2	5.6	94.4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12.1	87.9	18.5	81.5	15.0	85.0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27.8	72.2	28.8	71.2	28.3	71.7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28.4	71.6	32.0	68.0	30.2	69.8
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	87.0	13.0	85.2	14.8	86.1	13.9

주) 감소는 ‘매우 감소’와 ‘감소’를, 증가는 ‘매우 증가’와 ‘증가’를 합산한 수치임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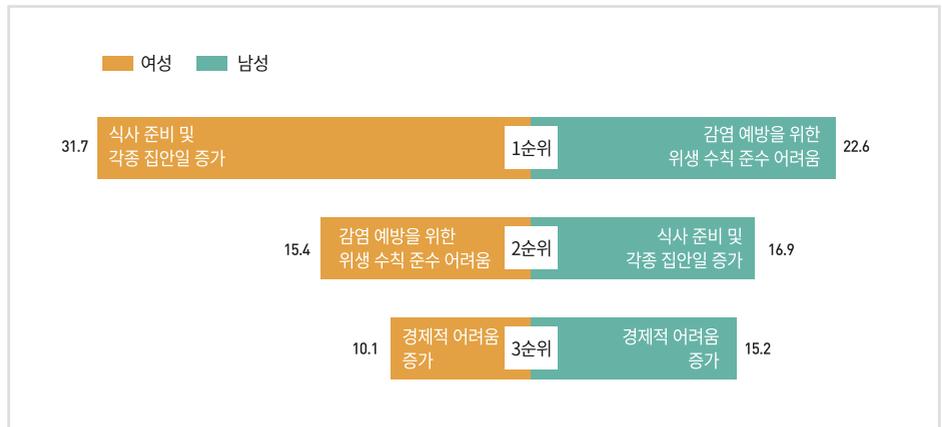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함께 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24.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18.9%), ‘경제적 어려움 증가’(12.6%), ‘가족이 아플 때 병원 이용의 어려움’(10.3%) 순으로 나타남

그림2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의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여성은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31.7%)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15.4%), ‘경제적 어려움 증가’(10.1%) 순으로 응답함
 - 반면 남성은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22.6%)을 1순위로 꼽고 다음으로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16.9%), ‘경제적 어려움 증가’(15.2%) 순으로 응답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더 가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그림3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의 어려움
성별 비교



03.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관계

코로나19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림4 코로나19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배우자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 중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17.1%)이 나빠졌다는 응답(15.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응답(15.3%)보다 나빠졌다는 응답(17.3%)이 조금 더 많았고, 반면 남성은 좋아졌다는 응답(17.1%)이 나빠졌다는 응답(15.2%)보다 조금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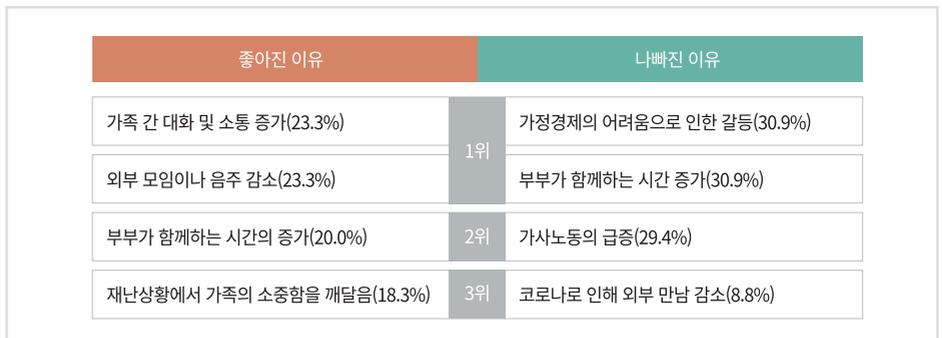
그림5 코로나19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성별 비교)



코로나19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 좋아진/나빠진 이유

-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하여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진 이유에 대해 ‘가족 간 대화 및 소통 증가’, ‘외부 모임이나 음주 감소’(각 23.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증가’(각 30.9%)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6 배우자와의 관계 좋아진/나빠진 이유(여성)



- 특히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증가’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진 이유 3위, 나빠진 이유 1위에 해당해 기존의 부부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함께하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하여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진 이유에 대해 ‘외부 모임이나 음주 감소’(34.6%)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36.4%)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증가’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진 이유와 나빠진 이유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7 배우자와의 관계
좋아진/나빠진
이유(남성)

좋아진 이유		나빠진 이유	
외부 모임이나 음주 감소(34.6%)	1위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36.4%)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29.5%)	2위	가사노동의 급증(30.9%)	
육아 및 가사노동 분담(14.1%)	3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증가(21.8%)	
가족 간 대화 및 소통 증가(12.8%)	4위	코로나로 인해 외부 만남 감소(10.9%)	

코로나19 이후 자녀와의 관계

그림8 코로나19 이후
자녀와의 관계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가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63.9%로 나타남
- 자녀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 중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23.5%)이 나빠졌다는 응답(12.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배우자와의 관계와 비교해 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 자녀와의 관계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녀와의 관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남성이 더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9 코로나19 이후
자녀와의 관계
(성별비교)

성별	변화 없음 (%)	좋아짐 (%)	나빠짐 (%)
여성	66.7	21.6	11.8
남성	61.0	25.5	13.5

**자녀와의 관계
좋아진/나빠진 이유**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 이유에 대해 여성은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43.9%), ‘자녀와의 소통 및 이해 증가’(39.4%),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증가(9.1%) 순으로 응답함
- 코로나19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컴퓨터/휴대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갈등’(41.7%),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 부담 증가’(36.1%), ‘불규칙한 생활습관’(13.9%), ‘온라인 학습지도에 따른 부담감(8.3%)’ 순으로 응답함

그림10 자녀와의 관계
좋아진/나빠진
이유(여성)

좋아진 이유		나빠진 이유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43.9%)	1위	컴퓨터/휴대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갈등(41.7%)	
자녀와의 소통 및 이해 증가(39.4%)	2위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 부담 증가(36.1%)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증가(9.1%)	3위	불규칙한 생활습관(13.9%)	
재난상황에서 가족의 소중함 깨달음(6.1%)	4위	온라인 학습지도에 따른 부담감(8.3%)	

-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 이유에 대해 여성과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43.1%), ‘자녀와의 소통 및 이해 증가’(40.3%),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증가’(9.7%) 순으로 응답함
- 코로나19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컴퓨터/휴대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갈등’이라는 응답이 60.5%로 여성보다 월등히 높고, 다음으로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습관’(18.4%), ‘온라인 학습지도에 따른 부담감’(13.2%),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 부담 증가’(7.9%) 순으로 응답함

그림11 자녀와의 관계
좋아진/나빠진
이유(남성)

좋아진 이유		나빠진 이유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43.1%)	1위	컴퓨터/휴대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갈등(60.5%)	
자녀와의 소통 및 이해 증가(40.3%)	2위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습관(18.4%)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증가(9.7%)	3위	온라인 학습지도에 따른 부담감(13.2%)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4.2%)	4위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 부담 증가(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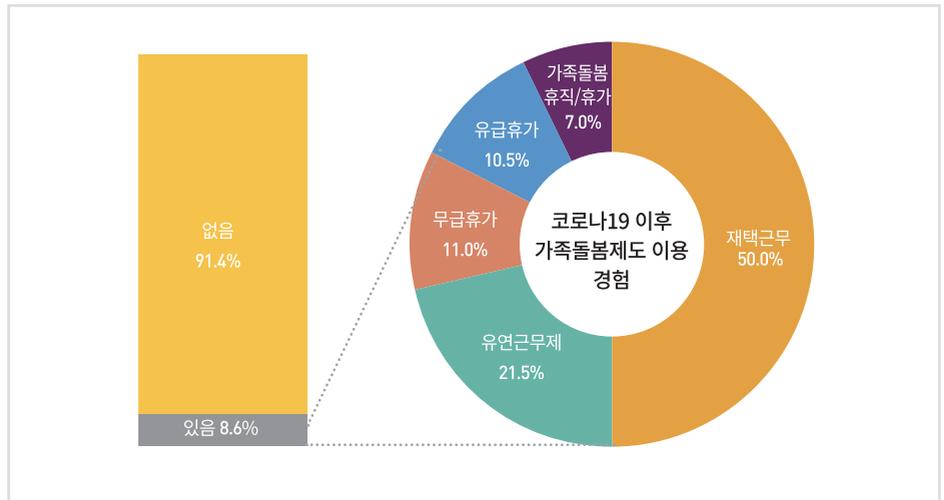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 이유는 성별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재택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되면서 여성은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은 컴퓨터/휴대폰 과다 사용,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자녀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04. 코로나19 시대 가족정책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제도 이용 경험

-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족에게 부과되는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족돌봄제도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족돌봄제도의 활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돌봄제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1500명 중에 129명(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돌봄제도의 여러 형태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은 재택근무였고, 다음으로 유연근무제, 무급휴가, 유급휴가, 가족돌봄 휴직(휴가)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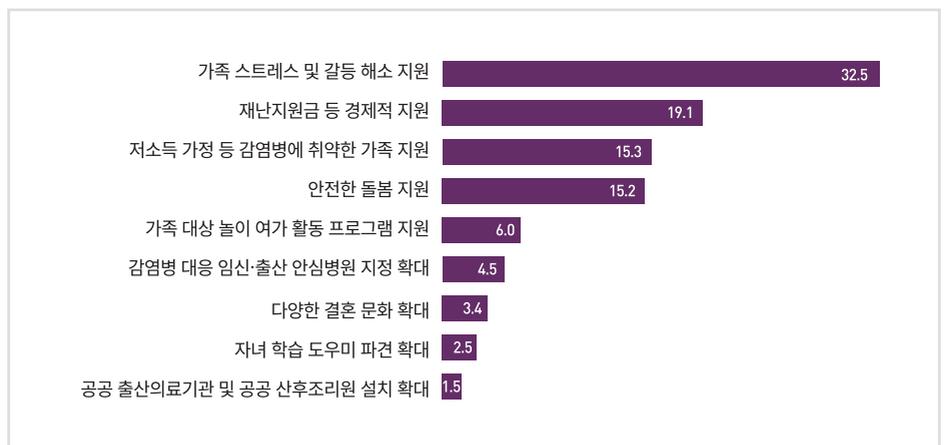
그림12 가족돌봄제도 이용 경험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32.5%)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19.1%),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가족 지원’(15.3%), ‘안전한 돌봄 지원’(15.2%) 순으로 나타남

그림13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코로나19 이후 가족정책 제언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가족프로그램 개발

-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우울감 및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음
- 조사결과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의 1순위로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한 가족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특히 2021년 11월 기점으로 정책의 방향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돼 왔던 가족프로그램을 우울감 및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맞춰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운영 필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가족 대응 매뉴얼 개발

- 조사결과 코로나19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진 이유에 대해 ‘온라인 학습지도에 따른 부담감’, ‘컴퓨터/휴대폰 과다 사용’과 같은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방식의 변화가 새로운 가족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온라인 학습에 따른 가족 대응 매뉴얼’, ‘온라인 학습에 따른 부모 역할 가이드라인’과 같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발맞춘 가족 대응 매뉴얼 개발 필요

가족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평등 가족문화 정립 노력 필요

- 조사결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도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사노동이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 특히 가사노동이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 안에서 돌봄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따라서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이 함께하는 절대적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평등 가족문화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새로운 재난상황을 대비한 가족돌봄제도 보편화

- 조사결과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제도 이용율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돌봄 부담을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족돌봄제도 사용을 보다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 정비 필요